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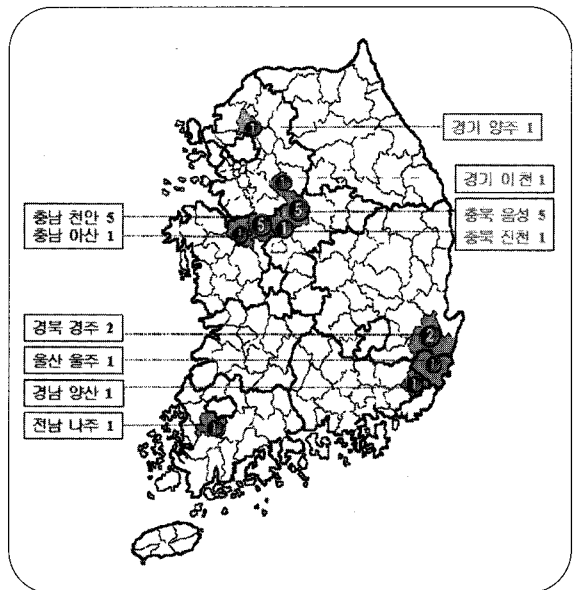
일관성 있는 살처분 정책과 조직적인 소비홍보 대책 실현

발생현황

닭 10건 오리 9건 발생

국내에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는 2003년 12월 10일부터 2004년 3월 20일까지 19건이 확인되었다. 이중 닭은 10건으로 육용종계 1건, 산란계 7건, 육계 1건이고 오리 9건으로 종오리 7건, 육용오리 1건, 오리(토종닭) 1건으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는 충북 6건(음성 5건, 진천 1건), 충남 6건(천안 5건, 아산 1건), 경기 2건(이천 1건, 양주 1건), 경북 2건(경주 2건), 울산 1건(울주 1건), 경남 1건(양산 1건), 전남 1건(나주 1건)이었다.(그림참조)



감염시기 및 경과

해외 철새에서 유입 가능성 추정

국내 발생한 HPAI는 LPAI가 변이된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새롭게 유입된 것으로 철새에 의한 유입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분석되고 있다.

검역원 역학조사위원회는 최초 발생농장은 천안 소재 종오리 농장으로 유입시기는 2003년 10월 말이나 11월 초로 추정하고 있다. 질병전파는 오리농장과 오리부화장 중심으로 인근 오리농가 또는 양계농가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며, 12월 처음 발생이 확인된 육용종계장은 인근 종오리 농장으로

부터 감염된 것으로 발표되었다.

감염 전파는 충북과 경기지역은 계분처리장과 오리부화장이 오염원이 된 것으로 보이며, 충남, 전남, 울산, 경남 지역은 오리 원종오리 부화장, 도압장에 출입하는 차량이 전파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방역현황

발생정도 따라 상응한 방역조치 실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자 농림부 대책상황실을 마련하고 차관주재로 관계부처 지자체 생산자단체 공조의 대책협의체를 구성하였다. 가축방역협의회에서는 발생농장 반경 500m 이내지역은 위험지역, 반경 3km 이내 지역은 위험지역, 반경 10km 이내지역은 경계지역으로 구분하였다.



방역 범위는 시장 군수는 해당지역의 축산업형태, 지형적 여건, 야생조류 서실실태, 계절적 요인, 역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하였다. 특히 충남 천안지역과 경기 양주지역은 발생농장 반경 30~40km이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예찰을 강화하였다.

오염지역내 모든 감염 매개체는 살처분 및 소각을 하게 되고, 위험지역은 닭 반출입금지, 부화장 폐쇄, 도계장은 경계지역 닭만 도축하고, 종란은 소독 후 이동허용, 식용란은 모두 폐기하며, 차량은 소독후 통행을 허용하되 계분운반차량은 통행을 금지시켰다. 경계지역은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에 따라 지시에 따라 반출입이 허용되나 오리의 식용란은 폐기하였다.

AI 확산방지를 위해 가금관련 시설 소독 및 닭, 오리, 까치, 돼지, 철새에 대하여 혈청검사, 역학조사, 예찰을 강화하고, 경계지역까지 매일 소독을 실시하였다. 살처분이 끝난후 30일 이후 이동제한을 풀고 입식시험을 거쳐 재입식 절차를 철저히 하였다.

피해농가 지원대책

살처분과 수매 등 1,531억원 지원

양계협회는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으로 8,000억원의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살처분농가에 대하여 살처분보상 458억원, 생계안정자금 40억원,

가축입식자금 81억원을 지원하였고, 소비 위축과 육계가격 폭락, 출하지연, 입식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양계농가와 영업중단 부화장, 도축장, 가공장 등 간접피해를 업체와 농가를 위하여 소득안정자금 15억원, 경영안정자금 666억원, 닭오리수매와 병아리 도태·부화용 종란폐기·종계도태사업에 271억원 등 총 1,531억원을 지원하였다.

닭고기·오리고기 소비촉진대책 은 국민이 닭고기를 먹는 소비대책 실현

동남아 지역과 미국, 캐나다 등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베트남 및 태국등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으로 국내 닭고기 소비가 발생전보다 76%, 오리고기는 93% 급락하여 장기화될 우려를 보이자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 지시로 닭고기 소비촉진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우선 정부, 생산자단체, 유통단체, 소비자단체 대표가 모여 축산물소비촉진 대책위원회



회를 구성하여 대규모 급식업소 소비확대 및 언론대응으로 양계협회, 오리협회, 계육협회장이 TV 3사와 일간 신문사를 방문하여 소비위축을 불러올 수 있는 살처분장면 보도와 과장 보도에 대하여 항의방문을 실시하였다. 의사, 한의사 약사 등 전문가·운동선수 등 참여하는 등 시식회도 개최하였다. 또한 전국민이 참여하는 닭고기 팔아주기 운동, 닭고기 오리고기 먹는 날을 지정하는 등 소비촉진 캠페인을 벌였고, TV광고 등 다양한 광고를 실시하였다. 최근에는 7월 7일 사랑해요 우리닭고기 캠페인 및 시식회와 9월 9일 구구데이 행사를 가졌다.

재발방지 총력 농가 차단방역과 철새 정보 수집

현재 정부는 2004년 11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여 예찰과 철새에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남아 국가와 AI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농가도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철새가 이동하는 시기이므로 관련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는 등 재발방지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양계**



취재 | 김종준 과장
3kjj8@hanmail.net